

---

碩士學位請求論文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惠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安 映 信

1997년 2월

#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惠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提出者 安 映 信



安映信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金 良 順   
審査委員 金 正 淑   
審査委員 金 惠 淑 

<抄錄>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안영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혜숙

이 연구는 기혼여교사의 개인적 변인, 직업 및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 그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주도내 38개 중학교와 27개 고등학교의 기혼여교사 65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배부된 657부 중 555부를 회수하여 부실하게 기재된 12부를 제외한 543부를 excel 5.0과 SPSS PC-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직업만족도는 김경동의 “종업원의 직장만족도 측정을 위한 척도” 20문항 중 15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결혼만족도는 Bowden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이인수가 번역·수정·타당화 연구를 통해 작성한 4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남편과 기혼여교사 본인의 연령, 결혼년수, 미취학 자녀수, 교직계획이었으며 결혼형태, 가족형태, 가계소득, 자녀수, 남편의 직업, 남편의 지지도, 교직경력, 가사보조자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년수와 교직경력, 교직계획, 남편의 지지도이며 남편과 기혼여교사 본인의 연령, 결혼형태, 가족형태,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미취학자녀수, 자녀수, 가사보조자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r=.468, p<.0001$ ),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를 약 22%( $R^2=.219$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 논문은 1997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 << 목 차 >>

I.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방법 .....	3
II. 이론적 배경 .....	6
1. 여성과 취업 .....	6
2.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개념 .....	18
1) 직업만족도 .....	18
2) 결혼만족도 .....	20
3. 선행 연구 고찰 .....	23
1) 직업만족도 .....	23
2) 결혼만족도 .....	26
III. 분석 결과 및 논의 .....	3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2. 연령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	34
3. 자녀수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	36
4. 가계소득과 남편의 직업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	38
5. 가족형태와 결혼형태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	39
6. 취업관련요인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	40
7. 직업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42
IV. 결론 .....	44
@ 참고문헌 .....	46
@ Summary .....	50
@ 부록 .....	52

## << 표 목 차 >>

<표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8
<표 2>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 여성 비율(1994년) .....	9
<표 3>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여교사 비율 .....	11
<표 4>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교원 현황 .....	12
<표 5> 고졸 이상 여자 졸업자수 .....	14
<표 6> 여성 취업자의 취업 사유 .....	17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표 8> 연령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	34
<표 9> 자녀수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	37
<표 10> 가계소득과 남편의 직업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	38
<표 11> 가족형태와 결혼형태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	40
<표 12> 취업관련요인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	41
<표 13> 직업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43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정 내의 성역할은 철저히 구분되었다. 여성의 역할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가정관리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취업중인 여성들도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이 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의 유급 노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성역할에 있어서 미약한 혁명<sup>1)</sup>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1991년 현재 전체 취업인구 중 여성이 40.4%를 차지하고 이들 중 74.8%가 기혼 여성이라는 통계(통계청, 1992)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sup>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전문 인력의 활용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자아실현이라는 여성 개인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사노동은 생활필수품의 상품화, 사회화로 점점 간소화되었고 자녀양육마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상황이 되어 가족의 공동 생활의 기반과 범위는 축소되었다. 특히 핵가족에서 부부 관계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어 이혼이 증가되는 등 가족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됨으로써 가족의 위기마저 초래되고 있다.

여성 교육의 질적 개선 및 여성의 취업 확대에 따른 경제력의 신장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정에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취업주부들은 기존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실정<sup>3)</sup>이므로 이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도의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의 경우에는 그 점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sup>3)</sup>

1) Ralph E. Smith(1979), "The Movement of Women into the Labor Force", ed. the Subtle Revolution : *Women at Work*, Washington, D. C. : The Urban Institute. Francine D. Blau and Marianne A. Ferber 공저,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공역(1994), 학지사, p.45에서 재인용.

2)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3),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p.148.

3) 신은숙(1981), "한국여자교수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원표(1983), "기혼여교사의 이중역할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기혼 취업 여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기대라는 일반적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결국 기혼여성들은 직업과 가정 역할을 양립시켜야 하는 무거운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에서의 성공은 동시에 가사 역할에 있어서의 성공을 의미한다.

기혼여교사들의 취업 동기는 경제적 이유보다 교직에 대한 관심이나 자아실현 등의 이유가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가정내 역할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할에도 관심과 헌신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혼여교사들은 생활의 대부분시간을 학교라는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직업만족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그리고 기혼여교사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는 것은 더 나은 직업만족도를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는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이므로 보편적인 사회과학의 측정 도구로써 살펴보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경향도를 알아보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의 성원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정도와 나아가서 사회의 안정성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여교사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만족도 연구는 기혼여교사의 직장과 가정내 적응을 알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취업 주부들 중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 생활에서의 적응 상태를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통해 분석해 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

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28에서 재인용.

아가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1. 기혼여교사의 배경변인은 직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2. 기혼여교사의 배경변인은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3. 기혼여교사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4. 기혼여교사의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 3.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예비조사는 1996년 1월 17일에 제주여중·고의 기혼여교사 14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는 1996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주도내 38개의 중학교와 27개의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기혼여교사 657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2~3일 후 다시 회수하였는데 배부한 설문지는 총 657부, 회수한 설문지는 555부이다. 이 중 부실하게 작성된 12부는 제외했기 때문에 분석자료로 사용한 설문지는 543부이다.



#### 2)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서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기혼여교사 본인과 남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직업만족도 측정

직업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은 김경동<sup>4)</sup>이 종업원의 직장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20문항 중 기혼여교사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5문항<sup>5)</sup>을 제외한 15문항

4) 김경동(1970), 「실업교육과 직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pp.170-171.

5) 4번: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은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이다.

문항의 내용은 능력의 활용, 성취, 활동성, 보수, 직장동료, 창의력, 흥미, 도덕적 가치, 참여, 인정, 안정성, 사회적 지위, 가치있는 경험 그리고 작업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다섯개의 응답 범주를 주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김경숙<sup>6)</sup>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Cronbach'alpha 0.809<sup>7)</sup>로서 높은 신뢰도가 인정되었다.

## (2) 결혼만족도 측정

이 연구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sup>8)</sup> Roach<sup>9)</sup>의 결혼만족척도(MSS ;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이용하여 기혼여교사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MSS는 처음에는 7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Bowden은 타당화연구를 통해 48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sup>10)</sup> 이인수<sup>11)</sup>는 이 48개 문항에 대하여 문항변별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인수의 연구에서 변별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두 문항(23, 29번)<sup>12)</sup>을 제외하고 4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 중 긍정적인 문항은 25개, 부정

5번: 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방침이나 정책이 실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9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

17번: 나의 직속상사는 그의 부하들을 공정하게 다룬다.

18번: 나의 직속상사는 그의 직책을 수행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상계서, p.172.

6) 김경숙(1987),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51-52.

7) 상계서, p.24.

8) Frazier, L.P.(1976). *An evaluation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Bowden, S.R.(1977), *An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이인수(1986), “결혼만족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p.15-17.

9) Arthur J. Roach, Larry P. Frazier & Sharon R. Bowden(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No.3, pp.537-546.

10) Bowden, S. R.(1977), 전계서, 이인수(1986), 전계서, p.16에서 재인용.

11) 상계서, p.27.

12) 23번: 인생을 가치 있고 흥미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정 생활 밖으로 눈

---

적인 문항은 21개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6점에서 2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excel 5.0과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단순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기혼여교사와 남편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업 및 결혼만족도와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던칸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사후 검증을 하였다. 또한 직업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 관계 분석 방법과 단순 회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을 돌려야 한다. 29번: 배우자와 이혼하여 헤어질까 봐 두렵다. 상계서, p.25.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과 취업

#### 1) 여성 취업의 의의

여성들의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화이다. 비록 직업 구조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먼 단계에 있지만 여성들의 취업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미혼 여성들의 취업은 부모들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배우자 선택이나 이성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했다. 즉,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은 이루어졌으나 부부 관계나 자녀양육면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남편에게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요구되어 부부간의 역할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혼 여성의 취업은 부부간에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남편지배형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어 평등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개발과 자기 발전의 동기를 가지고 취업을 한 경우의 여성들도 남성지배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정신적 갈등에,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의 이중 역할로 인한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경향이 가사에만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높은 편<sup>13)</sup>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받은 교육과 훈련을 직업에 연결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지위향상 등의 많은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성 취업의 의의를 결혼만족도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서동인<sup>14)</sup>은 부부의 결혼만족

13) 이효재(1987), 「가족과 사회」, 경문사, p.269.

14)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69.

도는 부인의 취업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인이 경제적인 필요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선택하고 경제적 안정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직업지향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부인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취업한 여성들은 더 좋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누리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밝혀졌다.<sup>15)</sup> 이것은 취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극과 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여성 취업의 현황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라 사회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부터 단순 반복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저임금, 저기능, 미숙련의 여성근로자 고용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자녀 교육, 대외활동, 경제적 활동 및 가정의 수입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5년의 37.2%에서 1994년의 47.9%로 10.7%포인트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지난 29년 동안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싱가포르(50.6%), 일본(50.3%), 미국(55.7%), 독일(58.9%)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가 점차 선진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과 1993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은 미국의 경우 20~49세까지가 모두 7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고, 독일도 20~54세까지가 80~90%,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도 20대에서 50대까지 사회참여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Francine D. Blau and Marianne A. Ferber 공저, 문숙재외 2인역(1994), 전계서, pp.189~190.

16) 통계청(1995.9), 「계간 국제통계」, p.260

<표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한 국 (94)	싱가포르 (93)	일 본 (93)	미 국 (93)	독 일 (92)	오스트리아 (92)	프랑스 (93)
총계	47.9	50.6	50.3	55.7	58.9	44.8	47.5
15~19	15.6	25.6	17.4	38.4	42.6	44.1	6.7
20~24	64.7	79.4	74.5	70.1	84.7	75.3	51.8
25~29	45.6	77.6	64.3	74.7	95.1	72.9	82.4
30~34	48.6	64.3	52.7	73.5	97.0	69.1	78.1
35~39	59.6	57.7	61.7	74.8	97.3	69.0	80.9
40~44	64.2	54.6	70.3	76.4	96.5	68.9	78.4
45~49	61.1	49.3	71.9	75.3	95.8	63.7	78.2
50~54	58.7	36.8	66.9	69.4	90.2	55.6	65.5
55~59	53.9	23.9	56.4	57.0	27.0	23.8	47.8
60~64	27.9 <sup>1)</sup>	10.9	40.1	37.4	2.7	5.2	15.1
65이상		4.0	15.9	7.5	0.4	0.8	1.3

주 : 1) 60세 이상

자료 : 통계청 '95 경제활동인구연보', ILO 「'94 노동통계연감」, 통계청 「계간 국제통계」, 1995. 9, p. 261

반면, 우리나라(1994년)의 경우 20~24세 여성이 64.7%, 40~44세 여성이 64.2%, 45~49세 여성 취업이 61.1%로 나타나 20대 초반과 40대의 연령층에서 사회참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연령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15~19세의 경제활동 인구 구성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 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결혼, 육아 문제로 근로를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 인구 중 여성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1970년 36%에서 1994년 40%로 4%포인트 증가함으로써 점차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UNDP자료에 의하면 <표 2>와 같이 중국(43%)만이 우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케냐(39%), 홍콩(37%), 말레이시아(36%), 싱가포르(36%) 등은 우리나라보다 모두 낮게

17) 상계서, p.262.

나타났다.

<표 2>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 여성 비율(1994년) (단위 : %)

한 국	말레이시아	홍 콩	중 국	싱가포르
40	36	37	43	36
필리핀	터 키	브라질	칠 레	케냐
31	34	28	29	39

자료 : 통계청 「'94 지난 30년간의 고용사정의 변화」, UNDP 「'95 인간개발보고서」, 통계청 「기간 국제통계」, 1995. 9. p.262.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구조를 1965년 이후 직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수 비중은 1965년에 64.0%(1,818천명)에서 1993년에 17.2%(1,328천명)로 감소한 반면 생산, 운수직 종사자 비중은 9.2%에서 20.4%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5%에서 9.6%로, 사무관련직 종사자 비중은 1.2%에서 15.4%로, 판매종사자 비중은 15.8%에서 18.6%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8.3%에서 18.8%로 증가하였다.<sup>18)</sup> 여기서 여성의 취업 분야가 단순노동직종에서 전문·기술직 및 서비스 업종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직업별 취업 구조를 남성과 비교하면 1965년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의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훨씬 낮았으나 1993년에는 남성의 취업 구조에 크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판매종사자는 여성이 여전히 높으나 생산관련직 종사자는 남성의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여성의 취업 구조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고급직종인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여성 종사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3년 기준으로 9.6%인 반면 스웨덴(45.1%), 노르웨이(36.8%), 덴마크(34.4%), 캐나다(35.9%), 미국(32.0%)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sup>20)</sup>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여성의 전문직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상계서, p.263.

19) 상계서, p.264.

20) 상계서, p.265.

### 3) 여교사 현황

우리나라의 여교사 비율은 1994년에 초등교육기관이 55%, 중등교육기관이 36%, 고등교육기관이 22%로 매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독일(84%), 영국(78%), 프랑스(77%) 등은 여교사 비율이 60~90% 수준을 보였으며 중등교육기관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3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40~60%를 보였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여교사 비율(22%)과 독일(24%), 영국(21%), 프랑스(28%) 등 선진국의 여교사 비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21)</sup>

우리나라 중등교육기관의 여교사 비율을 <표 3>과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교는 49%, 고등학교는 23%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중학교는 서울(58%), 부산(60%), 인천(59%), 경기(56%)로 전국 평균 중학교 여교사 비율(49%)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서울(26%), 경기(29%), 전남(24%)으로 전국 평균 고등학교 여교사 비율(23%)보다 높다.



---

21) 상계서, p.283.

<표 3>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여교사 비율

지역별	연도	중 학교 현황				고 등 학교 현황			
		학교수	교사수(A)	여교사수(B)	% (B/A)	학교수	교사수(C)	여교사수(D)	% (D/C)
전 국	1992	2,539	95,330	46,019	48	1,735	96,342	22,374	23
	1993	2,590	97,131	47,131	48	1,757	96,698	22,446	23
	1994	2,645	99,775	48,931	49	1,784	97,064	22,578	23
서 울	1992	337	20,198	11,680	57	253	20,642	5,392	26
	1993	343	20,426	11,887	58	258	20,795	5,409	26
	1994	347	20,943	12,280	58	266	21,056	5,506	26
부 산	1992	137	7,857	4,056	50	106	7,898	1,770	22
	1993	142	7,972	4,717	50	111	7,965	1,768	22
	1994	146	8,175	4,907	60	112	8,084	1,820	22
대 구	1992	80	4,297	1,930	44	59	4,600	950	20
	1993	83	4,413	2,038	46	59	4,645	955	20
	1994	87	4,612	2,201	47	60	4,743	951	20
인 천	1992	61	3,310	1,851	55	46	2,975	692	23
	1993	63	3,423	1,909	57	47	3,107	728	23
	1994	69	3,762	2,221	59	50	3,202	761	23
광 주	1992	56	2,548	831	32	53	3,805	635	16
	1993	60	2,666	870	32	53	3,645	625	17
	1994	62	2,836	872	30	53	3,526	633	17
대 선	1992	50	2,286	843	36	44	2,559	891	15
	1993	55	2,367	904	38	44	2,660	413	15
	1994	59	2,472	973	39	45	2,774	443	15
경 기	1992	282	10,929	6,030	55	212	10,425	3,039	29
	1993	304	11,590	6,411	55	218	10,738	3,132	29
	1994	323	12,268	6,973	56	230	11,007	3,198	29
강 원	1992	161	4,610	2,220	48	112	4,656	1,077	23
	1993	162	4,775	2,206	48	113	4,619	1,066	23
	1994	161	4,600	2,210	48	112	4,579	1,062	23
충 북	1992	110	3,480	1,290	37	70	3,448	654	18
	1993	110	3,503	1,373	38	71	3,460	657	18
	1994	113	3,706	1,428	38	72	3,414	652	19
충 남	1992	183	5,249	2,161	41	103	5,109	1,107	21
	1993	183	5,202	2,145	41	103	5,081	1,097	21
	1994	184	5,186	2,115	40	104	5,055	1,081	21
전 북	1992	193	5,891	2,304	39	127	5,864	1,192	20
	1993	194	5,940	2,279	38	125	5,805	1,192	20
	1994	195	5,997	2,330	38	124	5,839	1,221	20
전 남	1992	264	7,411	3,048	41	145	6,736	1,603	25
	1993	265	7,335	3,004	40	145	6,503	1,603	24
	1994	266	7,275	2,909	39	145	6,433	1,547	24
경 북	1992	265	7,344	2,985	40	205	7,687	1,838	23
	1993	294	7,487	3,065	40	206	7,661	1,820	23
	1994	299	7,537	3,052	40	205	7,405	1,716	23
경 남	1992	290	8,630	3,631	42	173	8,457	1,678	19
	1993	292	8,847	3,704	41	177	8,486	1,717	20
	1994	294	9,073	3,877	42	179	8,499	1,731	20
세 주	1992	40	1,290	559	43	27	1,481	293	17
	1993	40	1,265	559	43	27	1,468	296	17
	1994	40	1,333	589	43	27	1,448	296	17

자료 : 통계청, 「지역 통계 연보」, 1994. pp.317~318

제주도내 중, 고등학교 여교사 현황을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1995년 현재 중학교는 586명으로 전체 교사수 1,329명 중 약 44%를 차지하며, 고등학교는 전체 1,443명 중 250명으로 17.3%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교원 현황

구분 연령별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4세 이하	2(7.4)	25(92.6)	27(100)	2(16.6)	10(83.4)	12(100)
25~29세	56(29.9)	131(70.1)	187(100)	59(50.0)	59(50.0)	118(100)
30~34세	153(38.6)	243(61.4)	396(100)	257(73.0)	95(27.0)	352(100)
35~39세	132(54.3)	111(45.7)	243(100)	282(83.9)	54(16.1)	336(100)
40~44세	81(65.3)	43(34.7)	124(100)	201(92.2)	17(7.8)	218(100)
45~49세	78(81.3)	18(18.7)	96(100)	168(92.8)	13(7.2)	181(100)
50~54세	79(89.8)	9(10.2)	88(100)	106(100.0)	-(0.0)	106(100)
55~59세	82(93.2)	6(6.8)	88(100)	74(97.4)	2(2.6)	76(100)
60세 이상	80(100.0)	-(0.0)	80(100)	44(100.0)	-(0.0)	44(100)
합계(%)	743(55.9)	586(44.1)	1329(100)	1193(82.7)	250(17.3)	1443(100)

자료 :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도 교육청, 1995. p.142, pp.198~200.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미혼여교사 수는 연구자가 각 학교별로 조사한 결과 중학교 480명(82%), 고등학교 183명(73%)으로 미혼여교사 수보다 훨씬 많게 나타났다.

### 3) 여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여유에 대한 욕망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이어서 경제수준과 결혼의 행복도가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최저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늘어만 가는 기본적 생계필수품, 막대한 교육비와 세금의 지출이라는 경제적 이유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갖게 하였다. 취업한 후에 받는 저임금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조금이라

도 더 벌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미혜<sup>22)</sup>의 연구에 나타난 기혼 여성의 취업 동기를 보면, 시지역에서는 경제적 목적으로 취업한 사람이 가장 많고(68.5%), 군지역에서는 가족일을 갖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58.9%). 이를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층에서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취업이 많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능력 활용”, “자기 발전”을 위한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저학력층에서 경제적 목적에 의한 취업률이 높은 것은 자발적 취업이라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자신의 직업 생활에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비경제적 동기에서 취업하고 있다는 이희경<sup>23)</sup>의 연구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 (2) 교육

교육은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사회제도에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은 곧 교육에 나타나게 된다.

근대학교의 설립 이후 현대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어 왔으나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는 오랫동안 부여되지 않았다. 여자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남녀의 차별 없이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은 해방 후의 남녀공학제도부터이다. 이것은 미군정 시기에 부여된 자유,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었으며 전통적인 현모양처주의 교육으로부터의 전환을 위해 취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남녀공학을 실시한 것이 교육 기회 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크게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 후부터 여자 고등교육 기관이 증가하고, 남녀공학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sup>24)</sup>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상 여성졸업자수 추이를 보면 1965년에는 고등학교 여성졸업자수가 4만3천명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는 33만명에 달해 8배나 증가하였다. 초급대 졸업자는 2천8백명에서 7만명으로 25배, 대졸 이상은 3천7백명에서 8만명으로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에 34명에 불과했으나 1994

22) 노미혜(198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봄호, p.25.

23) 이희경(1981),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27.

24)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1988), 『여성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p.230-231.

년에는 7천8백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무려 23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은 30대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다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5> 고졸 이상 여자 졸업자수 (단위 : 명)

	1965년	1994년	대비
고등학교	43,405	330,479	7.6배
초급대(전문대)	2,808	70,467	25.1배
교육대	826	2,791	3.4배
대졸 이상 (대학원)	3,662 (34)	80,203 (7,810)	21.9배 (229.7)배

자료 : 교육부 「'94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계간 국제통계」, 1995.9. p.278.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여성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 1980년만 해도 과반수(66.0%)가 국졸 이하였으나 1991년에는 국졸 이하(38.4%)는 크게 감소하였고, 고졸(32.8%)과 대졸 이상(9.1%)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여성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중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 취업 여성의 과반수(58.3%)나 되어 남성 취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급 학교별 여자 졸업생의 신규 취업 양상을 보면 1991년의 경우 고졸 취업자의 55.3%가 여성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오히려 많은데, 이는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후 곧바로 취업을 하고 남자는 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38.8%로 남성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 차이와 성별 전공 분야의 편중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sup>25)</sup>

즉, 아직도 남자에 비해 여자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에도 전공과목의 선택이 예능이나 가정, 문과 계통의 매우 제한된 범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취업시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점이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을 높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양육이 끝난 부인들이 재취업하는 경우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으나 저소득층, 저학력 부

25)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3), 전게서, p.242.

인들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취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볼 때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인한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여성 취업률의 증가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임금의 안정된 직종인 전문직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반면 전문직일수록 여성에 대한 문이 좁고 경력이 중요한 취업기준이 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기가 끝난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이 더 어려워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더 낮으며,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않은 생산, 서비스 직종에서 기혼여성의 재취업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 (3) 사회·문화적 요인

여성들의 취업은 사회, 문화적인 조건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남미와 중동, 아시아 여러 지역의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 발전도가 비슷한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경제 발전보다는 사회,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크게 지배받는다.<sup>26)</sup>

남녀평등 사상은 여성들의 자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 영역을 가정내로 국한시켰던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서 성역할에 대한 평등적 이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취업여성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가족규모의 축소로 가사노동 부담이 감소되고 더욱이 편리한 가정기기가 많이 보급됨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 주는 것 역시 여성취업 증가를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였고, 직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의 기회가 많아졌다. 즉, 노동력 부족의 구인난 현상을 기혼여성 노동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로 고용기회가 증대되었고<sup>27)</sup>, 기계화에 의해 육체적인 힘과 기술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 분야의 일이 크게 확대되어 지금까지 복잡했던 노동과는 달리 기계 앞에서 끊어진 실을 이으면 될 정도로 노동이 단순화, 세분화되었고, 따라서 자본가는 임금이 높은 남성노동자 대신에 여성이나 연소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sup>28)</sup>

이렇게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26) N. H. Yossef : *Women and Work in developing Societies*,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76), p.202. 임효순(1986), "아버지의 여성 및 딸의 취업에 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22에서 재인용.

27) 장윤옥(199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 인식이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3호, p.326.

28) 한국사회산업연구회편(1992), 「새로운 사회학 강의」, 미래사, p.336.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산업이 군집한 지역일수록,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낮을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률은 높다. 또한 탁아소 시설이 되어진 곳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sup>29)</sup>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위 실망노동효과가 나타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진다. 반면에 경기가 회복되어 노동수요가 커지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시 높아지게 된다.<sup>30)</sup> 그러나 여성취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여러가지 불평등은 여성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정내 남성과 여성의 위계구조는 사회의 모든 제도에 확대되어 남성의 사회적 지배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이어진다. 취업에 관하여 남녀는 직업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사회의 성차별적 취업조직을 통해 여성들은 심한 성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불리한 노동 조건은 취업여성들이 직장적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직장에서의 부적응은 결혼생활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4) 자신의 취업에 대한 태도

과거 남편이나 자녀를 통한 대리 성취로 만족하던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자신을 통한 성취로 그 방향을 바꾸면서 사회분위기도 예전에 비해 여성의 이런 성취욕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의식에 있어서 여자들은 가정을 지켜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한다는 전통적 기대가 지배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처지에 있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 취업은 가정경제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직업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6>을 통해 보면 여성 스스로의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다. 불과 1988년과 1991년 사이의 짧은 기간이므로 커

29)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1988), 전계서, p.122.

30) 김수관(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pp.98-111.

다란 변화는 아니지만 생계유지와 가계보탬을 목적으로 취업한 비율은 55.1%에서 52.4%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적성을 활용하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하여 취업한 비율은 17.1%에서 20.0%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단위 : %)

년도	학력	생계유 지	가계보 탬	자기집 일	적성 활용	사회경 험	시간 활용	사회 기여	기타	계
1988	국졸이하	29.1	31.0	35.4	1.7	0.6	0.9	0.1	0.2	100.0
	중졸	19.2	46.3	21.6	5.3	4.0	3.2	0.2	0.1	100.0
	고졸	13.5	33.6	12.5	21.5	15.2	2.7	0.9	0.1	100.0
	대졸이상	6.0	13.9	6.6	57.7	9.5	3.2	2.9	0.1	100.0
	전체	21.4	33.7	24.6	11.3	5.8	2.5	0.5	0.2	100.0
1991	국졸이하	28.9	30.3	36.7	1.4	0.3	1.9	0.1	0.4	100.0
	중졸	20.5	43.7	24.1	5.3	2.4	3.6	0.3	0.2	100.0
	고졸	13.0	32.9	12.3	22.0	15.5	3.0	0.9	0.5	100.0
	대졸이상	4.6	15.0	5.8	61.2	9.5	1.9	1.9	0.1	100.0
	전체	20.2	32.2	24.0	13.8	6.2	2.6	2.6	0.4	100.0

출처 : 「사회통계조사」 1992, 통계청,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3), 「여성과 한국사회」



사실상 일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람이 될 경우도 많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소득이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거나 그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일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한다는 것, 그리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며 일 자체에서 얻는 보람이 귀중한 것이다.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꾸며 가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가정내에서의 역할이 남성보다 많고, 가부장제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 시간분담 등을 잘 조정해야 한다. 더욱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

다. 그래서 여성은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탈바꿈되어야 미래사회에 대비한 직업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sup>31)</sup>

취업여성은 강한 직업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노력할 때, 여성은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개념

### 1) 직업만족도

직업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하여 시대에 따라 이해하는 관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는 직업이 미분화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업이라기 보다는 일이나 노동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근대적 의미로 '직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부터이다. 사전적 의미의 직업이란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단순히 생계유지 기능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훨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32)</sup>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게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sup>33)</sup>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인간들은 직업세계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바로 사회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는 건전한 개인 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sup>34)</sup>

31) 한국여성개발원(1988), 「여성과 직업」, 한국여성개발원, p.124.

32) 한국여성개발원(1988), 전계서, pp.5-6.

33) 김태길외 3인(1992), 「삶과 일」, 고려원, p.150.

결국 직업은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의 분담 및 자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노동이나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활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므로 삶이 유쾌하고 충족된 것이 되려면 일을 하는 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직업에 불만족한 경우 그것이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와 가정생활에서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35)</sup> 또한, 직업에 대한 불만은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여 개인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으므로 직업만족도는 심리적·신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직업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직업에 대한 태도란 심리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업관 및 직업에 대한 장기 비전을 포함한 직업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직업관이란 직업을 자아실현 수단으로 보는가 아니면 사회경험 획득 수단으로 보는가 또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보는가와 같은 태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장기 비전이란 승진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정도 및 장기근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sup>36)</sup>

직업만족에 대한 개념은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계의 기초가 되므로 명확히 정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1940년 산업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그 연구가 시작된 이래 이에 관해서는 시대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sup>37)</sup>

Smith는 직업만족을 “각 개인이 자기의 직업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好·惡感의 총화 또는 好·惡感의 균형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태도”<sup>38)</sup>라고 정의하였으며, McCormick은 어떤 직업에서 얻어지거나 경험되는 욕구만족의 함수라고 보고 직업만족의 본질을 자신의 직업에서 얻어지는 자기실현의 감정과 성취감<sup>39)</sup>으로 파악했다.

이와 다른 견해로 Locke는 그와 같은 개념 정의는 모호하여 직무동기와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족과 동기사이에 관계가 체계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보고 직업

34) 한국여성개발원(1988). 전계서, p. 5.

35) 진유근(1986), 「조직 행위론」, 다산출판사, pp.198-199.

36) 진현숙(1995), “여성인력의 직업의식과 직업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마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p.9.

37) 진은경(1987), “전문직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와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p.11-12.

38) Henry, C. Smith(199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McGraw - Hill Book co., pp.114-115. 상계서, p.12에서 재인용.

39) E. J. McCormick(1974),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 (Ed.) : Prentice - Hall. 상계서, p.12에서 재인용.

만족을 “개인의 직업을 평가하거나 또는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는 유쾌함이나 좋은 정서상태”<sup>40)</sup>라고 정의하였다.

Sizilagy와 Wallace는 직업만족은 개개인의 직무자체, 급여, 감독 등 직업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갖는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면서 직업만족도 일반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인지, 감정, 행동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1)</sup>고 보았다. 이렇게 직업만족도는 연구의 초기에는 감정과 태도와의 관련성으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직업의 제 조건에 대한 자기평가와 정서상태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여교사의 직업만족도를 자기직업을 스스로 평가해서 얻게 되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은 결혼의 적응, 성공, 안정, 행복, 결혼의 질(質) 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며 측정 기준도 다르다.

Burgess와 Cottrell<sup>42)</sup>은 최초로 적응이 잘 되는 결혼이란 “부부의 행동과 태도가 일차적인 관계의 범주에서 서로의 인성 구조가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결혼”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결혼을 역할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보고 중요한 일에 대한 부부간의 일치 정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 애정의 표시, 배우자에 대한 신뢰, 부부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결혼적응의 주된 지표로 보았다.

결혼적응이란 서로에게 순응하고 변화에 맞춰가면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만족스러운 관계로서 부부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아끼며, 이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려 함으로서 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주어진 부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40) Locke, E. A.(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 Rand McNally, p.1300. 상계서, p.12에서 재인용.

41) A. D. Sizilagy and M. J. Wallace(1980),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Santamonica : Goodyear Publishing Co. Inc. p.89. 김경숙(1987), 전계서, p.5에서 재인용.

42) 서동인(1985), 전계서, p.5에서 재인용.

43) 송영란(1989), “Marriage Encounter 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25에서 재인용.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결혼적응이라 한다. 이러한 결혼적응에 대해서는 개인의 태도로 분석, 이해하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행복은 생활에서의 사소한 즐거움이나 큰 기쁨에 이르는 감정. 자연적 욕구에 의해 유발되는 비교적 영속적인 안락한 상태 또는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즐거움으로 파악된다. 행복이나 만족은 둘 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주관적 느낌으로 생각되지만 행복은 감정에 의한 경험을 의미하고 만족은 판단되어지거나 인지된 경험을 의미한다.<sup>44)</sup>

Orden과 Bradburn<sup>45)</sup>에 의하면 결혼의 행복이란 두개의 독립적인 차원 즉 만족과 긴장의 차원의 결과이다. 만족의 차원은 결혼의 행복과 긍정적으로 관련되고 긴장의 차원은 결혼의 행복과 부의 상관을 갖는다.

Lewis와 Spanier<sup>46)</sup>는 결혼의 만족, 행복, 적응, 의사소통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결혼의 질(marital quality)을 들고 있다. 이 결혼의 질은 부부관계의 질적 차원과 평가를 나타내고 결혼의 질이 높은 것은 높은 적응, 적절한 의사소통, 높은 수준의 행복, 안정성, 결혼만족감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결혼의 질에 대해서는 결혼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반면에, 결혼만족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결혼을 좋다 나쁘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들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sup>47)</sup> 요컨대 결혼만족은 남녀의 두 성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Rice<sup>48)</sup>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란 개인의 욕구가 남편·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

44) Angus Campbell, Phil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1975),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p.8. 금혜선(1984), "결혼만족도에 따른 Personality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p.18-19에서 재인용.

45) 서동인(1985). 진계서, p.6에서 재인용.

46) 최규린(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p.93에서 재인용.

47) Rollins, B.C. & R. Galligan(1978), *The Developing Child and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in R.M. Lerner, & G.B. Spanier(eds.), *Child Influenci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A Life-Span Perspective*, Academic Press, Inc. pp.74-77, 장현희(1989),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의 근거(Bases)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6에서 재인용.

48) P.F.Rice(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Inc, p.286. 최영아

되어지는 정도이다. 결혼생활에 완전하게 만족하는 부부는 없고, 기대와 수행간에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

Wesley R. Burr<sup>49)</sup>는 결혼의 어떤 측면에 대한 만족은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것이라 했다. 더불어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관리, 부부의 사회활동, 가사처리 방법, 동료감, 성관계, 자녀관계의 6개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김명자<sup>50)</sup>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의 실제(the actual)와 기대(the expected)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가정, 사회)요인에 영향받는 바 크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sup>51)</sup>로 정의하기도 한다.

Roach, Frazier & Bowden<sup>52)</sup>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시간적 추이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의 태도이며 결혼만족은 특별히 의미있는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태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각 개인의 결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변화할 수 있는 지각”을 의미한다.

생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 과정이며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라는 인간관계도 고정적이고 정적인 상태가 아닌 계속 변화해 가는 동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결혼만족을 계속 변화해 가는, 시기와 생활시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만족-불만족으로 연결의 지속변수로 보고, 이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p.13에서 재인용.

49) Wesley R. Burr(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2, NO.1, pp.29-37.

50) 김명자(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8.

51) Hawkins & James, L.(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0, pp.647-648. 유영주(1979), “한국 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4권, p.2에서 재인용.

52) Arthur J. Roach, Larry P. Fraizer & Sharon R. Bowden(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3, pp.537-546.

### 3. 선행 연구 고찰

#### 1) 직업만족도

일찍이 20C 초기부터 미국에서는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직업만족도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서는 Herzberg의 “두 요인 이론(two factor theory)”과 단일차원적인 “전통개념”이론이 있다.

두 요인 이론에 대한 기초는 Herzberg, Mausner와 Snyderman<sup>53)</sup>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두 요인이란 동기요인(Motivator)과 위생요인(Hygiene)을 말한다. 이들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인 엔지니어와 회계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직업에서 특히 만족을 느낄 때와 특히 불만족을 느낄 때를 묘사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의 결과에서 직업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업 그 자체, 성취감, 승진, 인정감, 책임 등을 포함하는 동기요인 즉 내적인 직업요소와 관리자의 특성, 대인관계, 작업조건, 봉급, 사회규율, 직위, 직업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위생요인 즉, 외적인 직업요소만이 직업만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요인 이론은 직업만족과 불만족이 단일차원상의 양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업만족도를 단일차원적인 전통개념으로 지지하는 자들은 Herzberg의 두요인 이론이 주시적이고 개인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는데, 내적요소와 외적요소가 서로 독립적이지 아니며, 내적요소인 동기요인들과 외적요소인 위생요인들이 모두 직업의 만족·불만족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sup>54)</sup> 이들은 직업만족이 작업환경에 있어서 어떤 변수의 존재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변수의 부재시 직업불만족을 일으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53) Herzberg, F., Mausner, B. & Snyderman, B. B.(1959) : *The motivation to work*, NY : Wiley. 김용희, 제미경(1987),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제5권 제2호, p.13에서 재인용.

54) Burke RJ : “Are Herzberg’s Motivators and Hygienes unidimensi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4) : 317~321, 1966, Graen GB : “Addendum to an empirical test of the Herzberg two-factor the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6) : 551~555, 1966, Ewen RB, Hulin CL, Smith PC & Locke EA : “An empirical test of Herzberg two-factor the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6) : 544~550, 1966. 상계서, pp.13-14에서 재인용.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성별에 따른 직업만족도, 직업관과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와 관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일에 대한 만족도차이, 직업만족도와 역할갈등,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박세천<sup>55)</sup>은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50대와 20대 층이, 교직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업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성희<sup>56)</sup>의 연구에서는 지방보다는 서울이, 공립학교보다 사립이,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대규모 학교보다 소규모 학교가,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김준곤<sup>57)</sup>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대체로 낮은 직업만족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차이는 성별 자체보다는 직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하급의 직무에 종사함에 따라 급여, 승진 기회, 일 자체 등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oore<sup>58)</sup>는 노동시장을 여성지배적인 분야와 남성지배적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 종사하는 남녀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직업만족도는 남성지배적인 분야에서 여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남성지배적 분야에서의 남성, 여성지배적 분야에서의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지배적분야에서의 남성이 가장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전현숙<sup>59)</sup>의 경우에는 직업을 자아실현 수단으로 생각하는 집단의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집단, 가장 낮은 것은 사회경험획득 수단으로 선택한 집단이었다. 간부로서의 승진가능성은 직업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승진 방법이 불명확할수록 현재 일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자<sup>60)</sup>의 유직업주부의 가정생활에 관

55) 박세천(1987), "교사의 직업관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pp.49-50.

56) 한성희(1986),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p.82-83.

57) 김준곤(1985), "여성의 직업적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 『여성문제연구』, 제14집,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p.265.

58) H. A. Moore(1985). "Job Satisfaction and Women's Spheres of Work", *Sex Roles*, Vol.13, No.11/12, pp.663-670. 강성희(1989),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10-11에서 재인용.

59) 전현숙(1995), 전계서, pp.49-54.

60) 김명자(1977), 전계서, p.12.

한 외국 연구의 고찰 결과 주부가 재정적인 필요보다는 일 자체를 즐겨 취업하는 경우, 부부간의 긴장도는 증가되지만 직업에서 얻는 만족감으로 이러한 갈등을 상쇄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주부일수록 일에서 얻는 만족감과 보상은 더욱 크다고 하였다.

김용희, 제미경<sup>61)</sup>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할 때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가 미혼보다 더 높고, 직업의 종류와 직장의 조직형태, 직업년수,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 노조가입여부, 연령, 건강상태는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주며,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요인은 자녀수라고 하였다.

Houseknecht와 Macke<sup>62)</sup>는 전문직 여성의 결혼적응을 다룬 연구에서, 취업주부의 경우 직업만족도가 높으면 결혼만족도도 높고, 직업만족도가 낮으면 결혼생활에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sup>63)</sup>은 직업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고 근무기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보다, 남편의 지지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으며 주부의 연령과 미취학자녀수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전은경<sup>64)</sup>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 및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더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에 대한 가족원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취업동기가 비경제적인 이유일 경우 직업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서동인<sup>65)</sup>, 박미령<sup>66)</sup>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김정현<sup>67)</sup>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유무 자체만으로는 아동의 성역할태도에 영향

61) 김용희, 제미경(1987), 전게서, pp.17-25.

62) S. H. Houseknecht, A. S. Macke(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3, p.658.

63) 김경숙(1987), 전게서, p.41.

64) 전은경(1986), 전게서, pp.50-51.

65) 서동인(1985), 전게서, p.54.

66)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68.

67) 김정현(1989), "母의 직업유무, 만족도, 성역할태도가 아동의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

을 미치지 않았고 자신의 일-가사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자녀의 양성성 개념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모의 직업유무와 성역할 태도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희<sup>68)</sup>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의 취업주부가 사무직의 취업주부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았고 직업만족도는 직업의 종류, 학력, 막내자녀의 나이, 가족형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지지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와 역할갈등도는 부분적으로만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상관계수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측정에 대한 시도는 Hamilton에 의해 행해졌으며, Burgess와 Cottrell, Terman에 의해 보다 포괄적인 연구기반을 확립했다.<sup>69)</sup>

결혼만족은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혼에서 추구될 수 있는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의 측정은 여러 요인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만족도 측정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분석단위를 부부관계로 제한하여 부부간의 조화, 적응, 의사소통과 같은 결합측면을 강조한 연구와 결혼생활이라는 생활의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Rhyn<sup>70)</sup>에 의하면 남녀간의 결혼만족도 차이는 결혼에 대한 주관적인 상황, 결혼기간, 자녀의 연령, 주부의 직업유무, 가정생활주기와 같은 요인과 관계되며, 남녀 모두 사랑과 애정, 동료의식 등과 같은 상황에 좀 더 크게 만족하면 할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Terman<sup>71)</sup>은 재정문제, 오락, 종교, 애정, 동료관계, 자녀양육, 식사예절, 관습, 인생

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p.39-41.

68) 강성희(1989), 전게서, pp.90-92.

69) Spanier, Graham B.(1972), "Romanticism and Marital Adjustment"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4. 유영주(1979), 전게서, p.3에서 재인용.

70) D.Rhyn(1981), "Base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No.2. p.941.

71) Terman and Lewis(1938), *Psychological factor in marital happiness*, U.S.A., McGraw-Hill Book co. , p.439. 유영주(1979), 전게서, p.3에서 재인용.

관, 인척관계 등 10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Jeries<sup>72)</sup>는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부인의 문제와 감정에 대한 남편의 이해, 남편의 관심도, 남편의 가사협조, 부부가 같이 의사교환을 하는 시간의 양 등에 부인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Hayes와 Stinnett<sup>73)</sup>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관계, 건강, 경제, 직업, 자녀관계, 여가와 사회참여, 자아개념 등 7개 영역에 걸쳐 중년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교회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만족도가 높았다.

결혼만족의 주관적인 면을 강조한 Campbell 등<sup>74)</sup>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 애정, 동료의식 등에 만족하면 할수록 더욱 결혼만족의 증가를 가져온다.

한편 결혼만족도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영주<sup>75)</sup>는 결혼만족도 요인을 경제생활, 사회활동, 생활태도, 자녀양육, 애정성, 가사처리, 인척관계, 성격으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연구하였다. 주부가 직업을 가졌을 경우 남편의, 부인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부인 자신이 직업을 가졌을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부인 모두 만족도가 높으며 가정의 수입과 자녀수는 결혼만족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결혼횟수가 경과함에 따라 부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인은 반대로 결혼횟수가 경과할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확대가족인 경우 남편·부인 모두 만족도가 낮으며 핵가족일 때 남편·부인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이정숙, 박상희<sup>76)</sup>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애정 및 성생활, 가정경제, 자녀양육, 여가활동, 시댁·친정관계, 건강문제 등 각 영역별로 연구한 결과 전체 결혼만족도와 모든 각 영역별 만족도에 있어 남편이 부인보다 높다고 하였다.

72) 이정숙, 박상희(1994),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원 논문집, 제1집, pp.64-65에서 재인용.

73) Maggie Parks Hays and Nick Stinnett(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s and Wives" .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3, No. 9, pp.669-674. 김명자(1977), 전게서, p.9에서 재인용.

74) 장현희(1989), 전게서, p.10에서 재인용.

75) 유영주(1979), 전게서, pp.4-10.

76) 이정숙, 박상희(1994), 전게서, pp.68-71.

장현희<sup>77)</sup>는 결혼의 질에 대한 평가와 결혼생활의 10가지 국면에 대한 만족 유무를 질문한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전반적으로 결혼의 질을 높게 평가했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사랑, 관심, 대화, 동료감 등이 결혼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의 경우 가족주기에 관계없이 가족 및 자녀와의 시간, 대화 등이 결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김명자<sup>78)</sup>는 동료감, 성격적응, 성생활, 자녀관계, 경제, 자아개념, 건강, 여가활동, 가사협조, 시댁관계의 10개 영역의 만족도와 전체적인 결혼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교육수준이 「중」인 경우 유직업주부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일반적인 주부의 결혼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서동인<sup>79)</sup>은 성과 애정, 부부간의 의사소통, 응집성, 경제관리, 자녀양육, 자녀관계, 시댁관계, 친정관계, 경제상태의 9개 영역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으며 부인이 경제적 필요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선택하고 경제적 안정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직업지향이 높을수록, 부인의 직업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그리고 부인이 직업과 가정역할간에서 역할긴장을 크게 가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며, 남편의 아내역할 기대도가 증가할수록 높았다.

금혜선<sup>80)</sup>은 결혼만족도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며 인성은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남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혜경<sup>81)</sup>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부인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남편과 동등한 평등형인 경우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최영아<sup>82)</sup>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의견

77) 장현희(1989), 전계서, pp.15-41.

78) 김명자(1977), 전계서, pp.13-41.

79) 서동인(1985), 전계서, pp.11-70.

80) 금혜선(1984), 전계서, pp.87-89.

81) 이혜경(1986),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34.

일치도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의견일치도, 애정표현도에서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경숙<sup>83)</sup>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이, 직업수준이 높은 전문, 기술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근무기간이 긴 집단이 그리고 남편의 지지도가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정혜정<sup>84)</sup>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결혼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가 없으며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 자녀수가 2명일 때 전체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결혼만족도가 높지만 유의한 차는 없으며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고 주부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취업한 경우 결혼만족도는 낮은 반면, 개인 향상을 위해 취업한 집단은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직업에 만족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며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졌다.

정승혜<sup>85)</sup>는 남편이 전통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보다 근대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가 더 높지만 부인의 성역할태도,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유무, 자녀유무, 가족생활주기는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인수<sup>86)</sup>는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8~13년일 때,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가 없을 때 결혼만족도는 높으나 연령과 가족형태는 결혼만족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찬미<sup>87)</sup>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행복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결혼지속년수, 수입, 부인의 직업유무 및 결혼형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이

82) 최영아(1987), 전계서, p.29.

83) 김경숙(1987), 전계서, pp.41-42.

84)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p.11-62.

85) 정승혜(1987),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25-43.

86) 이인수(1986), 전계서, pp.38-47.

87) 박찬미(1985),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p.42-64.

혼태도를,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허용적 이혼태도를 보였다.

송영관<sup>88)</sup>은 부부참만남(Marriage Encounter: ME)을 경험한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ME가 욕구표출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으로 보았다.

전춘애, 박성연<sup>89)</sup>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안정성이 증가하며 결혼 이외의 실제적대안과 가상적대안이 많아질수록 결혼안정성은 감소했다. 그리고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연<sup>90)</sup>은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고 주부의 취업유무, 남편의 직업종류 등은 결혼만족도에 관련성이 없었다고 하였다.

정순현<sup>91)</sup>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고, 두 집단 모두 경제수준이 높고 고용인이 있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40세 이하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이 높고, 연애결혼이 중매결혼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년수는 10년 이하가 11년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종교 유무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부역할인지도가 높으면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련<sup>92)</sup>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며, 부인의 직업이 중위직인 경우, 소득이 많을 때,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인이 취업했을 때 부인은 결혼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우울증을 더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 평등한 권력일 때,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시 부인은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금<sup>93)</sup>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없으며

88) 송영관(1989), 전계서, p.64.

89) 전춘애,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2호, p.94.

90)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1호, pp.113-117.

91) 정순현(1987),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부부역할인지와 결혼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52.

92)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1호, pp.71-73.

93) 이호금(1987), "여성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남편의 성격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취업주부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김미숙<sup>94)</sup>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았다.

허영숙<sup>95)</sup>은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했고 심리적자원, 경제적자원, 사회적 자원의 인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자원이 긍정적 성격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정용재<sup>96)</sup>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보다는 남편이,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상업, 기타보다 회사원, 은행원, 사무원일 때, 부인이 직업을 갖지 않은 부부일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가족형태, 수입, 종교, 결혼생활기간, 자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는 결혼만족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었다.

박미령<sup>97)</sup>의 연구에서는 연애혼이 중매혼에 비해, 결혼년수가 적을수록, 막내연령이 1~5세 혹은 19세 이상인 집단이, 자기성취나 자신의 세계를 갖기 위해 취업한 경우가, 남편이 부인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가, 수입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사보조원이 있는 경우,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현대적일수록, 자녀가 없을 때,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지만 부인의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규련<sup>98)</sup>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집단보다는 남편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부부 모두 만자녀 취학전 단계가, 남편의 교육수준이 부인보다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 부인의 경우 가족수입이 많은 집단이,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연령과 부인의 취업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대학교 대학원, pp.37-38.

94) 김미숙(1989),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p.72-73.

95) 허영숙(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과 결혼만족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p.45-50.

96) 정용재(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57-61.

97) 박미령(1987), 전계서, pp.66-76.

98) 최규련(1984), 전계서, p.97.

### Ⅲ. 분석 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구분		N(%)
교 직 경 력	6년 미만	38(7.0)	결 혼 년 수	6년 미만	155(28.6)
	6~10년	265(48.8)		6~10년	232(42.7)
	11~15년	144(26.5)		11~15년	93(17.1)
	16~20년	66(12.2)		16~20년	39(7.2)
	21년 이상	30(5.5)		21년 이상	24(4.4)
남 편 연 령	30세 미만	6(1.1)	여 교 사 연 령	30세 미만	27(5.0)
	30~39세	344(63.4)		30~39세	403(74.2)
	40~49세	168(30.9)		40~49세	97(17.9)
	50세 이상	25(4.6)		50세 이상	16(2.9)
남 편 의 직 업	전문직	308(56.7)	가 사 보 조 자	유	232(42.7)
	전문기술·관리직	76(14.0)		무	311(57.3)
	사무직	78(14.4)		가정부	27(11.6)
	판매·서비스직	48(8.8)		친정어머니	60(25.9)
	농수산·생산직	17(3.1)		시어머니	99(42.7)
	무직	16(3.0)		기타	46(19.8)
교 계 직 획	당장그만둔다	5(0.9)	남 지 편 지 의 도	찬성	410(75.5)
	적당한시기에그만둔다	328(60.4)		보통	130(23.9)
	평생한다	210(38.7)		반대	3(0.6)
미 자 취 녀 학 수	0명	153(28.2)	가 형 족 태	부부가족	413(76.1)
	1명	198(36.4)		직계가족	111(20.4)
	2명	154(28.4)		기타	19(3.5)
가 소 계 득	200만원 미만	207(38.1)	자 녀 수	0명	38(7.0)
	200만원 이상	336(61.9)		1명	254(46.8)
결 형 혼 태	연애혼	297(54.7)		2명	231(42.5)
	절충혼	174(32.0)		3명 이상	20(3.7)
	중매혼	72(13.3)		계	543(100)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과 기혼 여교사의 연령은 모두 30~39세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63.4%와 74.2%였다.

결혼년수는 6~10년이 약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년 미만이 28.6%, 16년 이상은 11.6%였다. 결혼형태는 연애혼이 5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절충형이 32.0%, 중매혼이 13.3%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61.9%였고 200만원 미만은 38.1%였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56.7%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14.4%), 전문기술·관리직(14.0%), 판매·서비스직(8.8%), 농수산·생산직(3.1%), 무직(3.0%)의 순이었다.

자녀수는 1명이 46.8%로 가장 많았고 2명이 42.5%, 3명 이상이 3.7%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도 7.0%를 나타냈다. 미취학자녀수는 1명 36.4%, 2명이 28.4%였으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는 28.2%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는 부부가족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직계가족은 20.4%, 시부모나 친정부모를 제외한 다른 친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기타 가족은 3.5%였다. 제주도 가족의 특성은 결혼한 장남도 분가시키므로 직계가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보다 직계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성의 취업으로 부모의 가사조력이 필요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교직경력은 6~10년이 48.8%, 11~15년이 26.5%, 16년 이상이 17.7%였다. 교직생활을 적당한 시기에 그만 두겠다고 답한 기혼여교사는 60.4%였으며 평생 한다는 여교사는 38.7%, 당장 그만 두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9%로 나타났다. 남편이 부인의 교직생활을 찬성하는 경우는 75.5%였고, 보통은 23.9%, 반대한다고 응답한 기혼여교사는 0.6%로 남편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사보조자는 없는 경우가 57.3%로 있는 경우 42.7%보다 더 많았다. 이로서 기혼여교사들은 과반수 이상이 취업과 가사라는 2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42.7%로 가장 많았고, 친정어머니는 25.9%, 기타 친척이나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은 19.8%, 가정부를 고용한 경우는 11.6%로 나타났다.

## 2. 연령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남편과 기혼여교사의 연령, 기혼여교사의 교직경력 및 결혼년수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과 기혼여교사의 연령 및 결혼년수였으며,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직경력과 결혼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변수			N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연령	남편	30세 미만	6	51.50	8.37***	a	176.50	0.46	
		30~39세	344	52.78		a	164.26		
		40~49세	168	54.10		a	164.40		
		50세 이상	25	60.84		b	160.32		
	본인	30세 미만	27	51.81	4.05**	a	173.59	2.02	
		30~39세	403	53.31		a	165.08		
		40~49세	97	53.93		a	159.21		
		50세 이상	16	60.06		b	158.44		
교직경력	6년 미만	38	51.63	1.78		164.95		a	
	6~10년	265	53.21			164.85		b	
	11~15년	144	53.88			168.54	2.64*	b	
	16~20년	66	53.86			154.65		a	
	21년 이상	30	56.60			158.73		a	
결혼년수	6년 미만	155	52.09	3.97**	a	167.55	3.61**	a	
	6~10년	232	53.37		a	162.01		b	
	11~15년	93	55.29		b	170.99		c	
	16~20년	39	53.62		a	153.05		b	
	21년 이상	24	57.71		c	156.87		b	

1) \*\*\* p < 0.001, \*\* p < 0.01, \* p < 0.05

2) Duncan : 사후 검증 결과로 서로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남편과 기혼여교사의 연령은 모두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 $p<.001$ ,  $p<.01$ ) 결혼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연령과 기혼여교사의 연령은 모두 49세 이하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0세 이상의 집단과 49세 이하의 집단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의 집단의 직업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층 교사가 가장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한 박세천<sup>99)</sup>, 연령에 따른 직업만족도지수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용희와 제미경<sup>100)</sup>, 연령이 많은 교사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한성희<sup>101)</sup>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연령에 따라 직업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sup>102)</sup>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 자신의 연령에 따라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연령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변수라고 한 박미령<sup>103)</sup>의 연구와 부인의 연령이 41세 이상인 집단이 40세 이하의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정순현<sup>104)</sup>의 연구,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김경숙<sup>105)</sup>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sup>106)</sup>와는 일치하였다.

5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기혼여교사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부담과 가사노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어 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현직에 만족하는 수용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50세 이상의 기혼여교사들이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직경력은 직업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이는 직업년수에 따라 직업만족도지수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김용희와 제미경<sup>107)</sup>의 연구와 근무기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

99) 박세천(1987), 전계서, p.32.

100) 김용희, 제미경(1987), 전계서, p.22.

101) 한성희(1986), 전계서, p.80.

102) 강성희(1989), 전계서, pp.62-63, 김경숙(1987), 전계서, p.29, 전은경(1986), 전계서, p.41.

103) 박미령(1987), 전계서, p.73.

104) 정순현(1987), 전계서, p.38.

105) 김경숙(1987), 전계서, p.34.

106) 금혜선(1984), 전계서, p.67, 이인수(1986), 전계서, p.40, 최규린(1984), 전계서, p.97.

보다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김경숙<sup>108)</sup>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근속년수는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전은경<sup>109)</sup>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김경숙<sup>110)</sup>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결혼년수는 직업과 결혼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사후 검증 결과를 보면 직업만족도는 10년 이하와 16~20년 집단, 11~15년 집단, 21년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6년 미만의 집단, 6~10년과 16년 이상의 집단, 11~15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결혼년수가 21년 이상 된 기혼여교사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1~15년인 경우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11~15년의 기혼여교사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년 미만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년수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연구<sup>111)</sup>와는 일치하였으나 결혼지속년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sup>112)</sup>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 3. 자녀수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자녀수와 미취학자녀수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자녀수는 직업과 결혼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수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직업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직업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107) 김용희, 제미경(1987), 전게서, p.21.

108) 김경숙(1987), 전게서, p.31.

109) 전은경(1987), 전게서, p.41.

110) 김경숙(1987), 전게서, p.37

111) 박미령(1987), 전게서, p.66, 이인수(1986), 전게서, p.41, 유영주(1979), 전게서, pp.9-10.

112) 박찬미(1985), 전게서, p.45, 김명자(1977), 전게서, p.32, 김미숙(1989), 전게서, p.54, 금혜선(1984), 전게서, p.69.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기혼여교사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수가 2명이거나 없는 집단이 1명이거나 3명인 집단보다 직업만족도가 유의성있게 높게 나타났다는 강성희<sup>113)</sup>의 결과와 자녀수가 2명 이상일 때보다 없거나 1명일 때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전은경<sup>114)</sup>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자녀수에 따른 직업만족도지수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김용희와 제미경<sup>115)</sup>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9> 자녀수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변수		N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평균	F	Duncan	평균	F
자 녀 수	0명	38	52.42	2.20		167.79	0.36
	1명	254	52.91				
	2명	231	54.16				
	3명 이상	20	56.70				
미자 취녀 학수	0명	153	54.86	4.68**	a	162.33	0.59
	1명	198	52.28				
	2명	154	54.03				

\*\* p < 0.01

또한 미취학자녀수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경숙<sup>116)</sup>의 결과와, 막내자녀의 나이는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sup>117)</sup>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학령전인 1~7세의 자녀를 둔 주부는 직업에 불만족한 편이라고 한 전은경<sup>118)</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113) 강성희(1989), 전게서, p.65.

114) 전은경(1987), 전게서, p.41.

115) 김용희, 제미경(1987), 전게서, p.22.

116) 김경숙(1987), 전게서, p.30.

117) 강성희(1989), 전게서, p.65. 김용희, 제미경(1987), 전게서, p.22.

취학전 아동의 존재는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박미령(119)과 미취학자녀수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경숙(1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121)와,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122)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자녀수와 결혼만족도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유영주(123)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 4. 가계소득과 남편의 직업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가계소득과 남편의 직업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계소득과 남편의 직업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변수	N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평균	F	평균	F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07	53.09	1.05	163.65
	200만원 이상	336	53.82		165.78
남편의 직업	전문직	308	54.08	1.93	167.44
	전문기술·관리직	76	52.09		162.26
	사무직	78	52.91		158.09
	판매·서비스직	48	52.33		157.67
	농수산·생산직	17	57.53		170.41
	무직	16	52.56		155.94

118) 진은경(1987), 전계서, p.40.

119) 박미령(1987), 전계서, p.67.

120) 김경숙(1987), 전계서, p.35.

121) 금혜선(1984), 전계서, p.72, 정혜정(1985), 전계서, p.45.

122) 박찬미(1985), 전계서, pp.42-43, 이인수(1986), 전계서, p.46, 박미령(1987), 전계서, p.69.

123) 유영주(1979), 전계서, p.9.

<표 10>에 따르면 가계소득과 남편의 직업에 따라 직업과 결혼만족도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부의 월평균 수입과 이를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전은경<sup>124)</sup>의 연구 결과와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수입이라고 한 강성희<sup>125)</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김명자<sup>126)</sup>의 연구, 수입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sup>127)</sup>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의 수입은 결혼만족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라고 한 결과<sup>128)</sup>와는 일치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은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박미령<sup>129)</sup>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 5. 가족형태와 결혼형태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가족형태와 결혼형태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가족형태와 결혼형태는 직업과 결혼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형태가 직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sup>130)</sup>와 일치하였으며 또한 직계가족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유영주<sup>131)</sup>,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부부의 의견일치에서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최영아<sup>132)</sup>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으며, 가족형태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sup>133)</sup>와 일치하였다.

124) 전은경(1987), 전계서, p.39.

125) 강성희(1989), 전계서, p.91.

126) 김명자(1977), 전계서, p.30.

127) 이인수(1986), 전계서, p.44, 박미령(1987), 전계서, p.68, 김미숙(1989), 전계서, p.56, 최규련(1984), 전계서, p.97, 최영아(1987), 전계서, p.26, 정순현(1987), 전계서, p.38.

128) 유영주(1979), 전계서, p.9, 금혜선(1984), 전계서, p.73, 박찬미(1985), 전계서, pp.46-47.

129) 박미령(1987), 전계서, p.75.

130) 김용희, 제미경(1987), 전계서, p.22, 강성희(1989), 전계서, p.65.

131) 유영주(1979), 전계서, p.10.

132) 최영아(1987), 전계서, p.27.

133) 김명자(1977), 전계서, pp.34-35, 이인수(1986), 전계서, p.46, 서동인(1985), 전계서, p.61, 정순현(1987), 전계서, p.39.

<표 11> 가족형태와 결혼형태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변수		N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평균	F	평균	F
가형 족태	부부가족	413	53.27	1.24	163.65	0.43
	직계가족	111	54.20		165.75	
	기타	19	55.68		168.90	
결형 혼태	연애혼	297	53.92	0.73	166.57	2.34
	절충형	174	53.20		162.67	
	중매혼	72	52.83		158.57	

그리고 연애혼이 중매혼에 비해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다는 연구<sup>134)</sup>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나 결혼형태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는 연구<sup>135)</sup>와는 일치하였다.

## 6. 취업관련요인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취업관련요인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직계획이었으며,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지지도와 교직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도는 기혼여교사의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p < .001$ ).

남편이 기혼여교사의 직장생활을 찬성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반대한다는 경우가 아주 낮은 점수로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는 찬성한다는 집단, 보통이라는 집단, 그리고 반대한다는 집단간에 각각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지지가 클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sup>136)</sup>와 일치하는 결과

134) 박미령(1987), 전계서, p.66, 정순현(1987), 전계서, p.38.

135) 박찬미(1985), 전계서, p.49, 김미숙(1989), 전계서, p.56.

136) 박미령(1987), 전계서, p.67, 김경숙(1987), 전계서, pp.37-38, 정혜정(1985), 전계서, p.51.

로 부인이 직업활동을 할 때 남편이 부인의 직업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표 12> 취업관련요인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

변수		N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평균	F	Duncan	평균	F	Duncan
남지 편지 의도	찬성	410	53.78	1.05		167.09	9.45***	a
	보통	130	52.75			156.33		b
	반대	3	57.00			120.67		c
가 사 보 조 자	유	232	53.84	0.55		165.71	0.91	
	무	311	53.32			163.18		
	가정부	27	52.74	0.76		156.15	1.46	
	친정어머니	60	53.63			167.17		
	시어머니	99	54.66			168.83		
기타	46	53.02	162.72					
교 계 직 획	당장 그만둔다	5	47.00	13.40***	a	157.20	3.75*	a
	적당한시기에그만둔다	328	52.27		a	161.50		a
	평생 한다	210	55.69		b	168.74		b

\* p < 0.05    \*\*\* p < 0.001



남편의 지지도가 클수록 더 높은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지지도가 높은 집단이 지지도가 낮은 집단보다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김경숙<sup>137)</sup>의 연구와 가족원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직업만족도가 높았다는 전은경<sup>138)</sup>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강성희<sup>139)</sup>는 남편의 지지도가 전문직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사보조자는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

137) 김경숙(1987), 전계서, p.33.

138) 전은경(1987), 전계서, p.43.

139) 강성희(1989), 전계서, pp.65-66.

인으로 나타났다. 가사보조자 유무와 가사보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sup>140)</sup>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교직계획은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p < .001$ ,  $p < .05$ ). 교직생활을 평생 하겠다는 집단이 적당한 시기에 그만 두겠다는 집단과 당장 그만 두겠다는 집단보다 높은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기혼여교사의 교직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기혼여교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알게 모르게 습득한 여러가지 교육적 방법들을 학교라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교사는 항상 교육적 이론들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칠지라도 적당한 시기에 그만 두겠다는 기혼여교사들보다 노력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정신이 그대로 현장에 반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7. 직업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교사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를 구하였다. 나아가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 13>과 같다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r = .468$ ,  $p < 0.0001$ )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미령<sup>141)</sup>, 김경숙<sup>142)</sup>, 서동인<sup>143)</sup>, 정혜정<sup>144)</sup>의 연구에서도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 일치하였다.

140) 최규련(1993), 전계서, p.73, 박미령(1987), 전계서, p.68, 정혜정(1985), 전계서, p.48, 정순현(1987), 전계서, p.39.

141) 박미령(1987), 전계서, p.68.

142) 김경숙(1987), 전계서, p.39.

143) 서동인(1985), 전계서, p.54.

144) 정혜정(1985), 전계서, p.58.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를 약 22%( $R^2=0.219$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eta=0.125,  $p<0.0001$ ).

<표 13> 직업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회귀계수 ( $\beta$ )	상관계수(r)
직업만족도	0.125****	.468****
상수항	33.030	
F	151.821	
$R^2$	.219	

\*\*\*\*  $p < 0.0001$

## IV. 결론

지금까지 취업여성 중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기혼여교사의 개인적 변인, 직업 및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과 본인의 연령, 결혼년수, 미취학자녀수, 교직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가)남편과 본인의 연령이 50세 이상 일 때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사후 검증 결과는 50세 이상의 집단과 49세 이하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결혼년수가 21년 이상인 경우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1년 이상인 집단, 11~15년인 집단, 10년 이하의 집단과 16~20년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미취학자녀가 없을 때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라)교직생활을 '평생 한다'는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평생 한다'는 집단과 그 외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직경력, 결혼년수, 남편의 지지도, 교직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가)교직경력이 11~15년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사후 검증 결과는 6~15년인 집단과 그 외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나)결혼년수가 11~15년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11~15년인 집단, 6년 미만의 집단, 그리고 그 외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남편의 지지도는 남편이 기혼여교사의 직장생활을 찬성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보통인 경우, 반대하는 경우의 순이었다. 사후 검증 결과는 '찬성한다'의 집단, '보통이다'의 집단, '반대한다'의 집단간에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라)교직계획은 교직생활을 '평생 한다'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평생 한다'는 집단과 그 외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만족도는 남편과 기혼여교사의 연령이 50세 이상일 때와 결혼년수가 21년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연구는 그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은, 높은 직업만족도를 남편과 기혼여교사의 연령이나 결혼년수에 한정되지 않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혼여교사의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과 교직이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도록 하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만족도는 교직경력과 결혼년수가 11~15년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연구도 그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높은 결혼만족도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족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교직경력과 결혼년수에 한정되지 않게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혼여교사의 직장 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소극적 자세에 머물지 않는, 역할의 공동참여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혼여교사의 남편도 연구 대상에 넣어 비교해 보는 한편, 주부의 직업종류별로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만족한 생활은 기혼 취업여성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 참고 문헌 >>

- 김경동(1970), 「실업교육과 직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 문제연구소.
- 김수곤(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 김태길외 3인(1992), 「삶과 일」, 고려원.
-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1988), 「여성학」,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3),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이효재(1987),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진유근(1986), 「조직행위론」, 다산출판사.
- 한국사회산업연구회편(1992), 「새로운 사회학 강의」, 미래사.
- 한국여성개발원(1988), 「여성과 직업」, 한국여성개발원.
- Francine D. Blau and Marianne A. Ferber,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문숙재.김순미.정순희 공역(1994), 학지사.
- 강성희(1989),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금혜선(1984), “결혼만족도에 따른 Personality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경숙(1987),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명자(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미숙(1989),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용희, 제미경(1987),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제2호.
- 김정현(1989), “모의 직업유무, 만족도, 성역할태도가 아동의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준곤(1985), “여성의 직업적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 「여성문제연구」, 제14집,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 노미혜(198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봄호.
-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세천(1987), “교사의 직업관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박찬미(1985),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영란(1989), “Marriage Encounter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영주(1979), “한국 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 4권.
- 이원표(1983), “기혼여교사의 이중역할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인수(1986), “결혼만족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정숙, 박상희(1994),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원논문집, 제1집.
-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1호.
- 이혜경(1986),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호금(1987), “여성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희경(1981),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임효순(1986), “아버지의 여성 및 딸의 취업에 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윤옥(199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이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3호.

- 장현희(1989),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의 근거(Bases)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은경(1987), “전문직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와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전춘애,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1호.
- 전현숙(1995), “여성인력의 직업의식과 직업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마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정순현(1987),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부부역할인지와 결혼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승혜(1987),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용재(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2호
-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1호.
- 최영아(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한성희(1986),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허영숙(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제주도 교육청(1995), 「제주교육 통계연보」.
- 통계청(1995. 9), 「계간국제 통계」.
- Burr, W. R.(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No. 1.

- 
- Houseknecht, S. H., Macke, A. 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3.
- Rhyme, D.(1981), "Base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2.
- Roach, A. J., Fraizer, L. P. and Bowden S. 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3.



---

## < Summary >

A Study on the Occupational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Female Teachers.

An, Young Sin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 Soo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ccupational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teacher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pational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questionnaire was taken to married female teachers who were working in 38 middle schools and 27 high schools in Chejudo. The 54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Microsoft Excel 5.0 and SPSS PC+ program.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Index of Employees' Occupational Scale Measurement" was used to measure the Occupational Satisfaction Level. The Marital Satisfaction Level was measured, based on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Bowd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he age of married female teacher and her husband, married year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and the married female teacher's professional goal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occupational satisfaction. But marriage type, the number of children, income, family type, working years, husband's support, husband's occupa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to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7.

---

and household supporter were not related to her occupational satisfaction.

The factors such as working years, married years, professional goals, husband's support significantly related to her marital satisfaction, but the age of married female teacher and her husband, marriage type, income, husband occupation, the number of children,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type and household supporter were not related to her marital satisfaction.

Occupation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r=0.468$ ,  $p<0.0001$ ). The simple regression model was able to account for 22 percent of the variation in marital satisfaction.



---

<< 부 록 >>



< 설 문 지 >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기혼여교사의 직업과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문적 기초를 찾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개인의 응답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문항이라도 빠뜨림 없이 모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진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번호에 다음과 같이 O표를 하여 주십시오.

- “정말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5번에 1 2 3 4 ⑤
- “대체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4번에 1 2 3 ④ 5
- “반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3번에 1 2 ③ 4 5
- “대체로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2번에 1 ②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에 ① 2 3 4 5



I. 직업만족도

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무엇인가 이룩한다는 보람을 느낀다 .....1 2 3 4 5
3.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무료하지 않고 무엇인가 할 일이 늘 있어서 좋다  
.....1 2 3 4 5
4. 나는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보수는 만족스럽다.....1 2 3 4 5
5.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1 2 3 4 5
6.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주

- 어지고 있다.....1 2 3 4 5
7. 내가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1 2 3 4 5
8.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부득이 해야 될 경우는 없다  
.....1 2 3 4 5
9. 이 직장에서는 나의 의견을 반영시킬 기회가 충분히 있다.....1 2 3 4 5
10. 나는 나의 직속상사로부터 충분히 신임을 받고 있다.....1 2 3 4 5
11. 나는 내가 일을 잘할 때는 충분히 칭찬을 받는다.....1 2 3 4 5
12. 현재의 일자리는 안정성이 있다.....1 2 3 4 5
13. 이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的人们로부터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1 2 3 4 5
14.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얻고 있다.....1 2 3 4 5
15. 현재 내가 일하는 직장의 여러가지 작업조건은 만족스럽다.....1 2 3 4 5

## II. 결혼만족도

1. 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2. 남편은 되도록이면 나를 편하게 해주려 한다.....1 2 3 4 5
3.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 걱정이 많다.....1 2 3 4 5
4. 만약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5. 나는 남편을 항상 신뢰할 수 있다.....1 2 3 4 5
6.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매우 공허했을 것이다.....1 2 3 4 5
7. 현재의 결혼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1 2 3 4 5
8. 나는 나의 결혼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진다.....1 2 3 4 5
9.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어떠한 지를 알고 있다.....1 2 3 4 5
10. 결혼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1 2 3 4 5
11.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1 2 3 4 5
12.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1 2 3 4 5
13. 지금의 결혼생활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1 2 3 4 5

14.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생활은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다.....1 2 3 4 5
15. 나는 결혼생활을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데 지쳤다.....1 2 3 4 5
16. 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1 2 3 4 5
17.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  
.....1 2 3 4 5
18. 결혼생활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1 2 3 4 5
19. 남편은 나를 매우 신경질 나게 한다.....1 2 3 4 5
20. 남편은 내 의사를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주는 편이다.....1 2 3 4 5
21. 지금까지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1 2 3 4 5
22. 남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 준다.....1 2 3 4 5
23. 남편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1 2 3 4 5
24. 결혼생활을 통하여 내 성격은 많이 억눌려져 왔다.....1 2 3 4 5
25.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1 2 3 4 5
26. 나는 남편에게 진실로 관심을 기울인다.....1 2 3 4 5
27. 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1 2 3 4 5
28. 남편은 내 자유시간을 불공평하게 자주 빼앗는다.....1 2 3 4 5
29. 남편은 나를 합당하지 못하게 대하는 편이다.....1 2 3 4 5
30. 나의 결혼생활은 나 자신이 결혼전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  
다.....1 2 3 4 5
31. 남편은 우리의 관계를 보다 좋게 하려 애쓴다.....1 2 3 4 5
32. 남편과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1 2 3 4 5
33. 우리 부부의 애정 표현은 각자의 마음에 드는 편이다.....1 2 3 4 5
34. 불행한 성관계가 나의 결혼생활에 장애가 된다.....1 2 3 4 5
35. 남편과 나는 어떤 행동이 올바르고 적절한 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한  
다.....1 2 3 4 5
36. 남편과 나는 같은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1 2 3 4 5
37. 남편과 나는 서로 좋아하는 몇 가지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긴다.....1 2 3 4 5
38. 나는 가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하고 바랄 때가 있다.....1 2 3 4 5
39. 현재의 결혼생활은 확실히 불행하다.....1 2 3 4 5

40. 나는 남편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1 2 3 4 5  
 41. 남편은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1 2 3 4 5  
 42. 나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렵다.....1 2 3 4 5  
 43. 남편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대부분 알아차린다.....1 2 3 4 5  
 44. 남편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 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1 2 3 4 5  
 45. 나는 남편과 자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1 2 3 4 5  
 46.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1 2 3 4 5

III. 다음 사항 중 귀하께 해당되는 사항에 (O)표를 해 주십시오.

1. 남편의 연령은 ?

- 1) 29세 이하.....(        )    2) 30 ~ 39세.....(        )  
 3) 40 ~ 49세.....(        )    4) 50 ~ 59세.....(        )  
 5) 60세 이상.....(        )

2. 귀하의 연령은 ?

- 1) 29세 이하.....(        )    2) 30 ~ 39세.....(        )  
 3) 40 ~ 49세.....(        )    4) 50 ~ 59세.....(        )  
 5) 60세 이상.....(        )

3.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

- 1) 5년 이하.....(        )    2) 6 ~ 10년.....(        )  
 3) 11 ~ 15년.....(        )    4) 16 ~ 20년.....(        )  
 5) 21년 이상.....(        )

4. 결혼은 어떤 형식으로 하셨습니까 ?

- 1) 연애결혼 .....(     )    2) 절충형 .....(     )    3) 중매결혼 .....(     )

5. 귀하의 한달 총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

- 1) 80만원 미만.....(        )    2) 80 ~99만원.....(        )  
 3) 100 ~149만원.....(        )    4) 150 ~200만원.....(        )  
 5) 200만원 이상.....(        )

6. 남편의 직업은 ?

- 1) 전문직.....(        )        2) 전문기술직...(        )

- 3) 관리직.....(        )        4) 사무직.....(        )
- 5) 판매직.....(        )        6) 서비스직.....(        )
- 7) 농수산직.....(        )        8) 생산직.....(        )
- 9) 없다.....(        )

7. 귀하의 자녀수는?

- 1) 없다.....(        )        2) 취학전.....(        명)
- 3) 초등학교.....(        명)        4) 중,고등학교...(        명)
- 5) 대학교 이상...(        명)

8. 귀하의 가족형태는 ?

- 1) 부부가족....(        )        2) 직계가족....(        )        3) 기타....(        )

9. 교직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5년 미만.....(        )        2) 5 ~10년 .....(        )
- 3) 11 ~15년.....(        )        4) 16 ~20년.....(        )
- 5) 21년 이상....(        )

10. 교직생활을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 1) 당장 그만두고 싶다....(        )        2) 적당한 시기에 그만두고 싶다..(        )
- 3) 일생 동안 하고 싶다....(        )

11. 남편께서는 부인이 직장에 나가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2) 보통이다.....(        )
- 3) 반대한다.....(        )

12. 귀댁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없다.....(        )        2) 가정부(파출부).....(        )
- 3) 친정어머니.....(        )        4) 시어머니.....(        )
- 5) 기타 .....(        )

♣ 대단히 감사합니다 ♣